



지구촌 양계 뉴스

미국

식용 가축에 항생제 사용 제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식용 소, 돼지, 닭을 기르며 사용하던 항생제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건강한 가축에 체계적으로 항생제를 과용해왔던 현상을 억제하려는 진지한 시도다. 항생제는 주로 물과 사료에 섞여 무차별로 제공됐다.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농부나 농장은 동물을 더 크게 키우려는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동안 생산자들은 사료에 낮은 수준의 항생제를 꾸준히 먹이면 가축이 빠르고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축산업자들은 앞으로 가축의 질병을 방지하려고 약물을 사용할 때

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했다.

연방정부의 관리들은 새로운 정책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해온 페니실린, 아지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 사용이 엄격해짐에 따라 공중 보건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축산업자들은 새 규칙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나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새 규칙의 허점이 많아 크게 소용이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 조인스닷컴

호주

AI 발생, 양계장 2곳 폐쇄

호주에서 AI가 발생해 양계장 2곳이 폐쇄됐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AI가 발생한 곳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남서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영 지역의 랭필드 목장으로, 방목형 양

계장과 닭장형 양계장에서 약 45만 마리의 닭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 300만개의 달걀이 폐기 처분됐다.

AI는 랭필드 목장의 방목형 양계장에서 최초 발생해 곧바로 인근 닭장형 양계장에까지 전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NSW주 1차산업부는 이번에 발생한 AI가 인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H5N1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달걀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시드니=연합뉴스

베트남

불법 수입닭고기 단속 강화

미국 농림부(USDA)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베트남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7.6kg으로 10년 전 4.26kg보다 70% 이상 증가했으며, 국가 전체 소비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소비는 약 37%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생산량은 27%, 수입량은 그보다 높은 49%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베트남의 가금류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2011년 기준 미국이 7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WTO 가입 이후 2008년도 가금류 수입물량이 급증한 후 2009년 수입량이 급감했으나 이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1700여 건의 가금류 불법 수입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닭고기 254톤, 280만 개의 알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입건에 부과된 총 벌금은 13만3000달러이며, 주로 베트남 국경지역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국경지대 식품안전위생 관리위원회는 가금류 불법수입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접해있는 쩡닌(Quang Ninh)성과 랑선(Lang Son)성의 국경지역 감독을 특히 더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에 유통되는 수입산 불량 닭고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해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일반 슈퍼마켓 판매 담당자에 따르면 불량 닭고기는 가격이 kg당 2.3달러이지만, 현지에서 공급되는 정상 품질의 닭고기는 7달러에 달해 3배가량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닭고기는 품질 정보가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는 품질에 대한 의심보다는 가격에 따라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산 불량 닭고기에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히며, 한국산 수입 닭고기에 대한 검열 의지를 별도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은 자체 품질 관리를 점검하고 현지 유통관리상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